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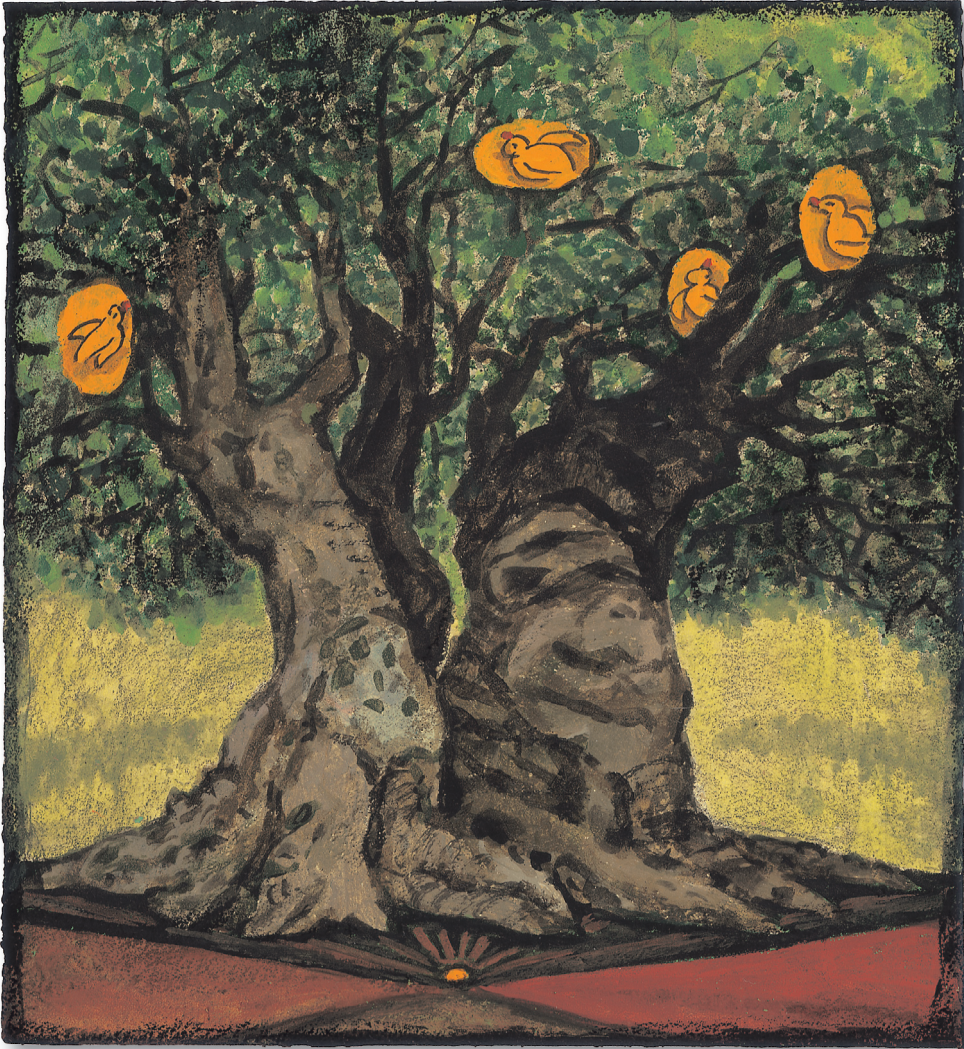
대구 주보

연중 제16주일 2017. 7. 23.(가해) 제2061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마태 13,32) 작디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풍성한 나무로 성장하는 겨자나무처럼 우리의 희망 또한 자라고 있습니다. 결실의 시간까지 잘 견뎌내야 합니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지혜 12,13,16-19

제2독서 로마 8,26-27

복음 마태 13,24-43.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당신 기억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김지현 요한 신부 | 청도본당 주임

주인이 좋은 밀알을 뿌린 밭에 사람들이 잠든 사이,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종들도 처음엔 몰랐지만 열매가 맺힐 때야 알아차립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밀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 가라지입니까?” 그러나 주인은 분노하지 않고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골라내어 다 뽑아 버리려는 종들과 달리, 주인은 수확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서 태워 버리고, 다음에 밀을 수확하겠다고 합니다. 주인의 판단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과 혼동할 수 있고, 가라지의 뿌리가 깊어 자칫 밀의 뿌리까지 함께 뽑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라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밀은 착한 사람이고, 가라지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함께 살도록 내버려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뽑아 버리거나 잘라 버리지 않고 내버려두라니? 너무 어이없어서 제자들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아들은 그대로가 맞다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당연히 벌주고 내쫓아야하지 않을까? 그게 정의이고 하느님의 나라고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너희가 가라지들을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이런 일은 생길 수 있다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의 나라, 아직 자라고 있는 밀밭에는 선과 악,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지혜와 어리석음이 공존할 것임을. 이땅 위의 밀밭은 아직 불완전한 세상임을 하느님은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빨리 가라지를 골라내어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서로를 가라지라고 규정하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무죄하고 약한 이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적어도 내가 옳다는 신념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고, 대신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자라가고 함께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라지 몇 개를 바라보면서 저 밀밭을 “가라지밭”이라고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밀밭에는 가라지보다 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밀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추수할 그때까지 밀들을 잘 키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죄인이라고 내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눈엔 우리 모두가 밀밭에 뿌려진 좋은 밀알들입니다. **골로 3:12**



제7장 경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와 정의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 무엇을 사기 위해 무엇을 파는가?

경제라 하면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을 팔고 사는 행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고 사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거래되고, 돈으로 값을 따져서 안될 것이 매매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마실 물을 병에 담아 파는 것은 열사의 산유국에서나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생수병에 담긴 물을 사 먹는 게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에 900원쯤 하지요. 같은 양만큼 휘발유를 사면 700원도 안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물 값이 기름 값보다 더 비싸게 되었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경제는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작동되는 것이어서 우리 상식이나 윤리의 문제와는 별로 관계없다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교리서 『두캣』 제7장은 그런 편견에 맞서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경제’활동의 본질과 역할을 다시 짚어 보자고 권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프레데릭 베그베데는 오늘날 상식과 윤리를 내던져 버린 ‘경제’의 일그러진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이키를 사기 위해 마약을 팔고, 부유한 사람들은 마약을 사기 위해 나이키를 판다.”(『두캣』, 180쪽) 이 작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와 윤리를 분리해서 생각한 탓에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는 관계없이 작동하는 경제라는 괴물을 키워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경제가 발전했다는 데 삶은 더 팍팍해지고, 사회의 부가 증대되었다는데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커지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교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경제의 본질과 역할을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라는 말씀입니다.

2. 경제의 중심은 인간이다.

경제에 관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경제 활동이란 곧 인간을 위한 인간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인간은 순전히 덧붙여진 경제적 요인이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결코 경제적인 평가로 제한될 수 없는 본성과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인간의 물질적이고 영적인 기본 선익을 위한 배려가 모든 정치적이고 경제적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며, 그러한 활동과 윤리적 가치를 위한 궁극적인 척도입니다. 또한 경제와 정치의 목적은 가장 가난한 사람과 나약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인류 전체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영국 총리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

경제에 관해 복잡한 이론과 수식을 줄줄 꿰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것을 훔쳐 누군가의 허영과 사치에 이바지하게 하는 경제라면 이제는 고쳐 써야 하지 않을까요?

박해시대의 김천 지역 교우촌



김천 지역의 천주교 전래는 1801년 신유박해 이후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신자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신자들에 의해 여러 지역에서 신자촌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잠공소와 서무터공소, 황점공소는 오늘날까지도 신앙의 유적지로서 그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천 황금성당의 전신 마잠공소

경북 김천시 지좌동 부근 '너머갈대' 동쪽 마을이며 말밭처럼 생겨 '마잠'이라고 부르게 된 이곳은 병인박해 이전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살았던 곳으로 대구대교구의 은인인 서상돈 아우구스티노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왜관 가실본당의 2대 주임으로 부임한 김성학 알렉시오 신부가 김천에 새로운 성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곳에 민가를 빌려 전교를 시작하였고, 이후 교세가 확장되자 황금동으로 옮겨 새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당이 지금의 김천 황금성당입니다. 1913년에 설립된 마잠공소가 바로 그 근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1935년 6월에 지좌본당으로 승격되었다가 1945년 5월 다시 공소가 되었고 1971년 8월 30일에야 본당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착함을 전해 온 서무터공소

경북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동쪽에 있는 부락인 서무터공소는 지례성당에서 관할하는 공소로 전라북도 무주군과 경상북도 거창군과의 경계 지점에 있는 대덕산, 수도산 사이에 있는 형제봉의 높고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첩첩 산중의 마을로 1873년 경기도 광주에 살던 안주원 알로이시오 곤자가 가정이 박해를 피해 이곳에 정착하면서 신자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서무터란 이름은 옛날 박해시대

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안착해서 살면서 착함(善)을 전하는 곳이라고 해서 선무터(善武基)라 하였는데 훗날 서무터로 변경해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882년 말부터 로베르(김보록) 신부가 이곳에 와서 성사를 집행하기도 하였는데 1900년대 초 교세통계표에는 신자수가 무려 100여명을 넘어섰고 이 중 반 이상이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중의 성전 황점공소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원황점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황점공소는 현재는 없어진 장자터공소로부터 비롯된 공소입니다. 병인박해를 피해 천주교인들이 황점리에서 약 1km 떨어진 장자터라는 골짜기로 숨어들어와 교우촌을 형성하여 숯과 웅기를 굽고 화전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1936년 수해로 마을이 유실되어 황점리로 공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현재 황점공소는 1972년 윤 에릭 신부가 신축한 것입니다. 2012년에는 대구대교구에서 장자터를 중심으로 마을 일대의 땅을 매입하여 황점신앙유적지를 조성하고 야영장과 펜션형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6월 23일에는 인근(증산면 황점1길 161)에 증산 오토캠핑장이 교구장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하고 7월 1일 개장하였습니다. **▶**

▶ 성지소개 내용 오류 정정

지난 연중 제14주일(7월 9일자)에 게재된 가실성당에 대한 소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료에 따르면 **순성교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과 순교사실은 증명되지 않았고, 신앙 유적비도 철거 되었음을 밝힙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검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응답하는 이웃사랑

(십계명 4~6계명)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가 '하느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면,

제4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넷째 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삶을 통해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에까지 미칩니다. 가정 구성원들의 의무로서, 자녀는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하며 참다운 공손과 순종으로 효도하고 영육에 필요한 것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신앙과 인성교육을 시키고 생활을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윗사람에 대한 예의와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사랑, 노사간의 화합, 교회에 대한 신자의 본분을 비롯해 국민의 나라에 대한 의무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다섯째 계명은 단지 살인을 금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의 고귀한 영혼과 육신 생명을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육체는 물론 인격까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이유로도 자신과 타인의 영혼과 육신을 해치거나 살인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살인에 협력하거나 사람을 죽이려는 의향으로 자행하는 일체의 행위도 용납되지 않으며 중대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죽을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위협에 처한 사람의 도움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태도와 행위나,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행위도 죄가 됩니다. 특히 가톨릭교회에서는 자살과 낙태, 안락사, 사형 등에 대해 엄격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6. 간음하지 마라

여섯째 계명은 인간의 성(性)과 관련되는 계명으로 마음과 몸의 정결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욕(무질서한 성적 쾌락을 원하고 이를 문란하게 탐닉하는 것), 자위행위, 혼인하지 않은 이들 간의 육체적 결합, 포르노, 매매춘, 강간뿐 아니라 이러한 기회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또한 남을 부정한 관계로 유혹하거나 남의 음란한 행동을 방조하는 것,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정결을 해치는 모든 언행과 표양이 죄가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적 차이와 상호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결혼한 부부의 이혼을 금하며 기구나 약물, 또는 수술을 통한 인공피임, 정자 혹은 난자 제공, 자궁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금합니다. **참고**

- 7. 24(월) _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 봉사자 연수(10시, 교육원 다동 대강당)
- 7. 26(수) _ 평신도위원회 회의(19시 30분, 교구청 별관 사목국)
- 7. 27(목) _ 190차 파스카 요한 연수(30일까지, 한티피정의집 영성관)

보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는 12사도 유해 성광 사진 유포 주의!

최근, 사진을 보기만 해도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12사도 유해가 담긴 성광 사진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신자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어 천주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 손희송 주교)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교회사적으로 근거가 불확실한 것이며 이를 유포하는
것 또한 그릇된 신심행위로서 미성숙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묵상해야 할 대상은 불확실한 유해가 담긴 성광이나 사진이
아니라 바로 성광과 감실 안에 모셔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직접 모시는 것보다 더 큰 은총과 치유는 없습니다.

답 네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잣대만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휴가를 뜻깊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24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7월 25일(화) 14:00 신암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4일(월) 11:00 도량성당		7월 25일(화) 19:30 다사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4일(월) 11:00 계산성당		7월 26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마을 후원회미사	7월 24일(월) 11:00 수성성당		7월 26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26일(수) 10:00 평화성당		

대리구 소식

3대리구 전례꽃꽂이 기본형과정

기간: 9.1~12.29 매주 금 13:00~15:00

장소: 3대리구청 / 40만원(재료비 포함)

문의: (010)2604-6896 / 641-5678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만남이 가능합니다. /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조대윤 신부, (010)3777-4688

예수고난관상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가능

장소: 청주 예수고난관상수녀회

문의: (043)295-5940

1박 2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8.5(토) 14:00~6(일) 15: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

차량이용비: 1만원(신청 필수)

성령세미나: 8.11(금) 13:00~13(일)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8월 한티 피정

기간: 8.5(토) 16:00~6(일) 13:00

주제: 천상여정의 동반자(순교영성)

지도: 김경희(루시아) 수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꽃동네 젊음이 성령 피정

기간: 8.4(금) 13:00~6(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대상: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젊은이(중학생~35세 미만)

회비: 3만원 / 문의: (010)5490-5345

8박 9일 성경 통독 피정

구약: 8.7(월)~11(금)

신약: 8.12(토)~15(화), 바틀로교육센터

출퇴근 9:00~21:00 / 신·구약 선택 가능

문의: 783-9817 / (010)3360-9817

<http://www.happysister.net/vatolot>

청년 성경 통독 피정(마르코 복음)

일시: 8.27(일) 10:00~17: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앗숨 분원

대상: 남녀 청년 (만35세 미만)

문의: (010)3526-1208

교육 | 모집 | 기타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6기 원우 모집

개강: 9.18(월) 19:00 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

(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모래놀이 치료사 분석심리 교육 및 2학기 전문가 과정 모집

일자: 8.26(토)

장소: 성토마스성당 교육관

자격: 학사 이상

문의: 박카타리나 수녀, (010)5635-1775

김자영, (010)8802-6839

성요셉요양병원 입원 상담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말기암 전문

요양, 주말농장 체험을 통한 가족단

위 원예치료, 장효원 신부님의 매일

미사와 함께 영성치료

문의: 610-3645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감사선물 · 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재입주차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승개 하라!**
다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옥 _루가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33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안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민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산부인과
임상 경력 10년 이상
임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GARAM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전문공사
• 소방안전관리 대행
• 소방관련 기술교육
대표이사(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대표전화 053)600-8485
대구시 달서구 달서로 559 이앤씨비즈니스타워 B108호

개별
17개소
척추 · 관절 및 뇌 · 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 · 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리노한의원
[내분비·한의학 박사 김 의 근(리노)]
허리 · 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면역치료,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치료
야간진료 : 화, 목 9시
원장/한의학 박사 김 의 근(리노)
☎ 755-5575, 559-5255
범어대성당 1층 상가 (범어역 2번 출구)

www.baekeuclinic.co.kr
백두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어게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행사 | 모임

바나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하고 병든 이를 위해 오신 성모님
일시: 7.27(목) 기도 13:00, 미사 14:00
장소: 계산성당

교육 | 모집

제3차 약혼자 주말

기간: 10.13(금)~15(일), 베네딕도영성관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dcy.co.kr>

2017 하계 성경읽기의 이론과 실제

기간: 8.7~25 매주 월, 수, 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박병규 신부 / 신청비: 4만원
대상: 성경읽기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2017 소람 상담사목교육 하반기 모집

내용: 상담심리이론, 가족관계학,
상담심리실습, 성격심리학
신청비: 과목당 5만원
문의: 소람상담소, 250-3100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교전무용·장구오카리나, 가곡성가, 성
가반주_오르간·클래식기타, 한국화, 유화, 발
성법, 왕초보관광영어, 사범자격과정꽃꽂
이, 제대꽃꽂이, 미술심리상담사2급·1급, 수
지침, 초급원어민영어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8월_ 윤원진(비안네) 신부
9월_ 김정숙 교수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황금배경 이론화(템페라) 기초과정 모집

기간: 9.6~11.29 매주 수 10:00~ 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 12주
문의: 대가대 평생교육원, (010)9550-2530

가톨릭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대상: 35세 미만 전공자 / 마감: 8.15(화)
문의: 안주환, (010)8581-5148
<http://www.catholicphil.org>

성지안내봉사교육 '한국천주교회사'

기간: 9.1~12.15 매주 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6만원 / 선착순 30명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6610-6103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성법, 기타교실, 문인화(서예, 사
군자), 성가반주법(평일미사·성령기도회)
문의: 프란치스카눔, (010)9100-4114

채용 | 안내

교구청 관리과 여직원(사무직) 채용

자격: 대졸, 30세 이하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
증명서, 교적증명서 / 마감: 7.28(금)
제출: 교구청 본관 관리과, 250-3030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8.2(수)~4(금)
접수처: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문의: 660-5161 / kkoya97@cu.ac.kr
<http://www.dgsunmok.or.kr>

대구역양원 조리원(정규직) 채용

근무조건: 격주5~6일 근무
근로대우: 4대보험, 가족수당별도,
퇴직금별도 / 마감: 7.25(화) 18:00
문의: 616-3110

인천박문초등학교 정교사 채용

분야: 정교사(학급담임) 3명
자격: 초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마감: 8.7(월) / 문의: (032)810-8501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428~9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우리야이 아플때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 99병상 입원실 운영 * 성장클리닉 운영
* 편입 외래진료: 오전 9시 ~ 밤 11시까지
* 토·일·공휴일: 오전 9시 ~ 밤 9시까지
대표전화 053)260-7777
서부정류장 원문시장 옆 (구.달성군청지리)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대구연세안과
·백내장수술 ·아이디자인 라식
·노안 수술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학교교수 원장 **박종원** (소시모)
☎ 053)626-8881~5

보건복지부 선정 
약한 협진 시범사업 지정병원
전인병원
수술 후 암·재발·통증 치료
053) 670-6000

윤경재단
시지노인전문병원
신경계 재활전문 노인병원
원목 수녀님께서 상주합니다.
곽 동 환 (마르코)
☎ 053-812-1212

서은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부모교육
자녀문제 상담 전문
바우처 부모코칭 제공기관
서 은 주(켄마) 교육학 박사
☎ 053)754-7150 | www.대구심리상담.KR
수성구 메트로폴레스1단지 정문앞 SH빌딩 5층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페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번더 맞은편)
☎ 053)942-8822

유러피안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oumou 무무스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덕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화로 13(수성못)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페파니아)